사찰 후원 '공양간'…승가 일상 다루는 무형 문화



공양간의 수행자들
구미래 지음
담앤북스 펴냄
3만8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찰 후원(後院)은 흔히 밥을 짓는 공양간과 같은 말로 통상 사용된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공양간이 부엌의 의미로 한정되는 데 비해, 후원은 대방 · 식당 · 곳간 · 장독 · 우물 등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포괄적 개념이 들어가 있다. 출가수행자는 후원의 소임을 한 단계씩 거치며 정식 승려로 성장해 간다. 그런 연유로 후원은 수행자의 입체적 일상이 담길 뿐만 아니라 수행정진 및 통과의례로서 절집의 삶이 펼쳐지는 곳이다. 한국사찰의 후원문화에 반영된 수행자의 일상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 주목 받지 못한 승려들의 삶이 무형의 문화로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느끼게 한다.

이 책은 '최종 결과물로서의 음식' 뒤편에 자리한 승가의 일상을 조명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무형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출간됐다. 또한 이 책은 오랜 기간 불교 의례와 수행 · 생활문화를 주 연구 분야로 삼은 저자가 다양한 문헌 자료 연구는 물론, 7년간 여러 사찰의 후원을 방문해 직접 노스님들께 전해들은 생생한 한국사찰 후원 문화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그 기록이 역사적이고,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며, 매우 생생하다.

지금까지 사찰의 식문화나 후원 문화와 관련 연구는 음식 자체에 쏠려 있었다. '사찰음식'이라는 명제 아래 사찰의 후원문화가 일부 이야기될 뿐, 식생활을 포함한 승가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모습은 기록되지 않았다. '공양간'으로 대표된 사찰의

7년간 전국의 다수 사찰 후원을 방문
노스님들께 전해들은 생생한 경험담
승가 소중한 일상의 인문학적 접근법
경건한 후원문화 vs 유쾌한 후원문화



후원문화는 승가의 일상을 다루는 무형 문화로, 전승 양상을 제대로 포착해 기록하고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공양간의 수행자들〉은 그러한 바탕 위에 무형문화로서 가치를 지니는 승가의 소중한 일상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불교와 후원문화〉는 후원문화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제 2장 〈불교 후원문화의 역사〉는 초기불교 · 중국불교 · 한국불교로 구분해, 초기불교 당시의 율장 조항과 중국불교 및 한국불교의 전개 과정에 따른 식생활의 흐름을 살폈다. 3장 〈사찰의 살림살이 공간〉은 공양간, 대방, 물의 운용, 곳간, 방앗간 등 후원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출가자의 일상을 다루었고, 4장 〈식량 마련하기〉는 사찰 후원의 최대 과제였던 양식 마련의 근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탁발과 자비량과 자급자족, 보시 등으로 행해져 온 과거 한국사찰 경제 기반의 방편을 여러 사찰 및 노스님의 서술을 통해 기록했다. 이어 제 7장 〈후원의 민속과 세시 음식문화〉에서는 사찰 후원에 전승된 조왕신앙 및 민속과 세시에 따른 음식문화에 대해 봄 · 여름 · 가을 · 겨울로 나누어 서술하고, 8장 〈불교 후원문화의 방향성〉으로 끝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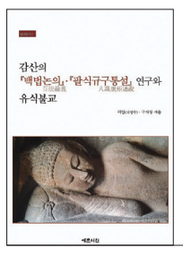
각 장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의 장점은, 후원문화 역사에서부터 근현대 출가수행자의 방대한 일상사 및 미시사를 빠짐없이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근현대를 겪어 온 원로 승려들의 경험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기록'을 생생하게 서술했다는 점이다. 그 속에는 일상의 경건한 후원문화와 유쾌한 후원문화가 공존한다. 불기(佛器)에 담긴 고봉의 마지는 사찰 후원서 피워 내는 신성한 꽃과 같기에 부처님 마지를 짓는 부뚜막에 조왕보를 설치해 그을음을 차단하는 일이나, 공양간과 채공간을 구별해 마지 짓는 데 반찬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는 일, 공양 소임을 맡은 이들이 부뚜막 위쪽에 자리한 조왕단에 예배를 올리면서 후원의 하루를 여는 일 등 경건함과 정성스러움은 수행자에게 빠질 수 없는 대목이다. 또한 주먹밥을 싸서 소풍을 가고, 풀을 쑬 밀가루를 모아 수제비를 끓여 먹고, '재에 쓸 곶감을 누가 다 빼먹었나'로 대중공사가 벌어지는 일 등 학인들의 유쾌한 후원문화도 무궁무진하다.

▲저자 **구미래**는?

2005년 안동대 민속학과서 박사학위(불교민속 전공)를 취득하고, 동국대 · 중앙대 · 경기대 외래교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문화재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 백년대계본부 문화창달위원, 불교민속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다. 불교 의례와 수행 · 생활문화를 주된 관심 분야로 삼아 그간 사십구재, 수륙재, 영산재, 예수재, 팔관회, 땅설법, 감로탱, 불복장, 발우공양, 사찰음식, 전통산사, 사하촌, 탑돌이, 연등, 세시풍속 등 불교 무형문화를 연구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불교의 일생의례〉 〈한국인의 죽음과 사십구재〉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불교 상제례 안내〉 〈한국인의 상징세계〉 〈절에 가는 날〉(공저) 〈진관사 수륙재〉(공저) 〈종교와 그림〉(공저) 〈종교와 의례공간〉(공저) 등이 있다. 월산민속학술상(2013), 묘엄불교문화상(2018), 불이상(2021)을 수상했다.

'참선 수행하는 사부대중' 위한 수행 지침서



감산의 〈백법논의〉 · 〈팔식규구통설〉 연구와 유식불교
허암 김명우 · 구자상 지음
예문서원 펴냄/3만6000원

감산 덕청 스님(1546~1623)은 교학의 제일인자이며 선(禪) 수행자로 선교에 능통해 명나라 4대 고승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김명우 교수와 구자상 교수가 감산 스님이 저술한 〈대승백법명문론논의(백법논의)〉와 〈팔식규구통설〉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 해설해 〈감산의 백법논의 · 팔식규구통설 연구와 유식불교〉로 출간했다.

〈백법논의〉는 세친보살이 5위백법을 간략히 정리한 〈대승백법명문론〉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이고, 〈팔식규구통설〉은 현장 스님이 8가지 식(八識)을 12개 게송으로 압축해 설명한 〈팔식규구〉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이다. 이 두 책을 합본해 〈성상통설〉이라고 한다.

감산 스님은 이 두 책을 '참선 수행을 하는 사부대중'을 위한 수행 지침서로 저술했다. 감산 스님은 주석을 통해 끊임없이 유식과 참선 수행을 연관시키고, 참선 수행자는 반드시 유식을 공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인 김명우 교수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읽기 시작하면서이다. 3여 년 전 성철사상연구원은 김명우 교수에게 성철 스님의 '유식사상'에 대한 논문 발표를 요청했고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의 유식 법문은 감산 스님의 유식사상에 토대를 두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산 스님이 저술한 〈대승백법명문론논의(백법논의)〉와 〈팔식규구통설〉은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의 토대라는 점에서 한국 불자들에게 의미가 크다. 설명에 따르면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에서 유식의 핵심 사상인 '8가지 식(八識)'을 12개의 게송으로 압축한 현장 스님의 〈팔식규구〉 게송을 풀이하는데, 그 사상적 근거를 성철 스님은 "감산 스님과 감산 스님의 손상좌인 우익 지욱 스님의 주해를 위주로 했다"고 스스로 밝힌다. 성철 스님은 감산 스님과 지욱 스님의 주석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했다.



김명우(사진 왼쪽)와 구자상 공동저자의 대담 모습.

禪敎에 능통한 감산 스님 저서
한 · 중 · 일 최초 번역서 의미
성철 스님 〈백일법문〉에 근거
일반 독자들 위한 쉬운 용어로

김명우 교수는 "감산 스님은 책에서 선수행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한 부분이 보인다.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해 선 수행자가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마음과 마음작용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불교학자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유식을 일반인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김명우 교수는 번역 초고를 작성 한 후 쉽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평소 함께 연구하는 구자상 교수가 용어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저자들은 여러 차례 번역을 수정하며 쉬운 말로 설명하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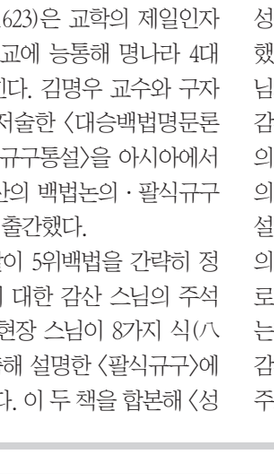
책을 집필한 구자상 교수는 "보통 유식이라면 일반인은 물론이고 불교 공부를 한 사람조차 어렵게 느낀다"며 "시중에 해설서도 마주하면 어려운 느낌 때문에 책을 내려놓게 된다. 저술하는 동안 독자들이 불친절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세친보살의 〈대승백법명문론〉의 한역본과 한글 번역이다. 2부는 이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인 〈백법논의〉에 대한 번역과 주해이다. 3부는 현장스님의 〈팔식규구〉의 한역본과 한글 번역으로, 〈팔식규구통설〉에서 발췌했다. 4부는 이에 대한 감산 스님의 주석인 〈팔식규구통설〉의 번역과 주해이다.

책에는 또한 저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용어해설'이라는 항목이 있다. 감산 스님의 주석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감산 스님이 주석을 생략한 부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풀이한다. 또 세친보살의 저작인 〈대승오온론〉, 호법보살의 〈성유식론〉, 안혜보살의 〈대승광오온론〉과 〈유식삼십송석〉, 감산 스님의 손상좌인 우익 지욱 스님의 〈대승백법명문론직해〉와 〈팔식규구직해〉 등의 논서를 추가로 번역해 참고 자료로 제시한다.

허암 김명우(虛庵 金銘友)는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과 동아대 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유식사상을 전공해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동의대 철학인문교양학부에 재직하고 있으며, 불교 관련 집필 활동에 전념한다. 구자상(具滋尙) 교수는 동아대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을 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의대학교 철학인문교양학부 조교수로 재직하며, 철학 및 동양철학 강의를 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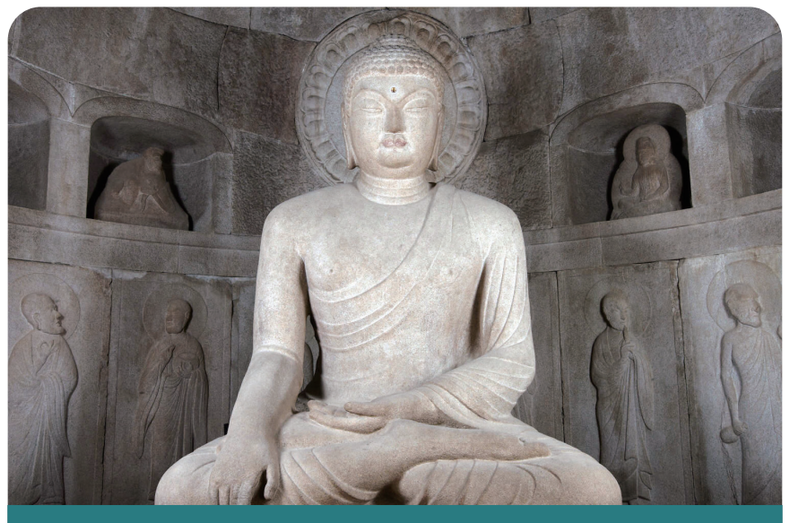


대원불교학술총서 • 4

에리히 프롬과 불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 프롬은 왜 불교를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보았는가? 프롬은 왜 그렇게 불교에 심취했고, 불교는 그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박찬국 지음/신국판/316쪽/값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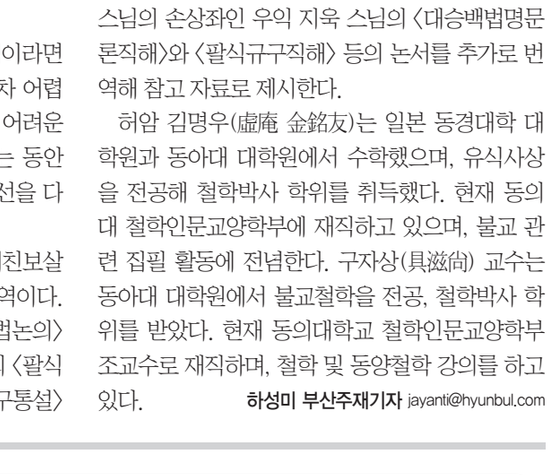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담마빠다

『법구경』으로 널리 알려진 담마빠다는 시대와 종교를 뛰어넘어 곁에 두고 읽으며 되새기면 '삶의 지남'이 되고 '인생의 지혜'를 일깨우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화령 역주/국판/192쪽/값 14,000원

어린이의 인성을 따뜻하고
자비롭게 일깨워줄 불교동화!



자비의 씨앗 열두 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자비와 보시 사상을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삽화와 함께 재미있는 동화로 엮었다.

이한영 글/김승연 그림/컬러/208쪽/값 14,8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